

여우 고개?

소양댐 아래 여우 고개에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

샘밭 해강 아와 든이 살면서
11번 버스를 타고 리나가린 보면
우두동과 샘밭 사이 작은 언덕이
나온다.

그리 낯익이 넓게 난 그 고개의
돌리판이 여우 고개 라는 걸
알게 되면서 희심의 생겼니

여우 고개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견되는 지명이다.
그만큼 여우는 우리에게 가까운
동물이 있던 것이다.

그리운 여우고개

우리나라 토종 여우는 붉은 여우로 사실 중개 정도 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기껏해야 토끼나 쥐 정도 잡아먹고 사는 이 동물이 우리 민담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요물로 등장한다. 호랑이나 표범, 곰, 늑대 정도는 되어야 위협이 될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작은 짐승을 악당으로 등장시켰을까? 혹은 할 일을 팽개치고 술과 여흥에 빠져 있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변명을 여우에게 전가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사내를 흘리는 요부를 여우로 바꿔 말한 것은 아닐까? 아무튼 전설의 고개는 4차선 길이 돌리고 간을 빼먹는 여우는 이제 멸종되었다. 하지만 여우가 정말 요물이라면 그리 쉽게 사라질 리가 없다. 인간계 어디쯤 숨어 들어 지금도 사내들을 흘리고 살 것이다. 밤마다 내게 와 싱싱한 간을 내어 놓으라 재촉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잠들지 못하고 여우를 생각하는 것이다.

2021. 4월. 10

클린에 기록하는 시인이 되면서
몇 년이 지나 이제 다른 곳의
시인들은 내가 클린의 시인이
되었다고들 한다.

이 장소에 산다는 건 그곳에
덕을 본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곳에 대한 시를
쓰는 것조차 예의가 아닐까?

2021. 4. 15

퇴색한 전설에 푸른 편사의
새로운 우물을 파고
새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
시인의 책무가 아닐까?

2020. 4. 19

심발라 우드 등의 여우 개에게
대한 자료를 조사해보고
여러 문헌이 나왔지만
가장 자세한 것이
1981년에 출간된

< 한국구비설화 대계 >
에 나오는 물린, 물영
조의 여우 개이다.

2020. 4. 21

"우두동의 학동이 사랑마을에 있는 서당에 다녔다. 서당의 훈장 어른은 비록 시골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식이 높고 도마저 상명하 목은 사람이었다. 우두동의 학동은 평소에는 상명하 총명하고 체격도 좋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웅기도 사라지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다. 이를 지켜보던 훈장은 아무래도 학동에게 산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에 서당의 큰 임기가 끝난 후 남으라고 하여 '무슨 일이 없나'고 물었다. 학동은 머뭇거리다가 모두 털어놓았다. 아찔적벽으로 고개를 넘을 때마다 아예쁜 처녀가 나타나 입맞춤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훈장이 어떻게 입맞춤을 하느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학동의 말이, 입을 맞출 때 구슬을 자기 입에 넣었다가 도로 처녀의 입에 넣고를 반복한다고 하였다. 몇 번을 그렇게 하고는 또 보자고 하며, 사라진다고 했다. 훈장은 이것이 분명 범상치 않은 여우의 짓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여우가 어떤 존재이고, 구슬이 무엇인지 꿰뚫었다. 그래서 훈장은 학동에게 이번엔 갈 때 또 처녀와 입맞춤을 하게 되면 얼른 그 구슬을 삼키라고 하였다. 그러고 빨리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내려다보라고 하였다. 학동은 훈장의 신신당부에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귀갓길에 또 고개를 넘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처녀는 역시 교태를 부리며 학동에게로 다가왔다. 이제는 아예 바로 입맞춤을 했다. 학동은 훈장의 당부가 생각나서 구슬이 자기 입으로 들어왔을 때 얼른 삼켰다. 구슬이 너무 커서 바로 삼키기에 예를 먹었다. 구슬을 삼키려고 하는 것을 눈치챈 처녀는 학동을 간질하면서 구슬을 뱉으라고 종용했다. 그 때문에 학동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명만 내려다 보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대지도 아리뭇던 처녀는 꼬리 아홉 개 달린 여우가 되어서 사라졌다. 이후 학동은 유명한 지편이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한 여인은
사내의 정기를 바랄아 먹으며
간혹한 인간은 또 이를 먹이 통해
여우가 공들여 수련한 구슬의 힘을
배어 받는다

비록 인간 중심의 서술이지만
여기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려는
관계가 그려져 있다.

여의 권위를 잃은 한편서
이들 연인사로 서로 반포하고

싫은 생각이 들었다
이미 이 도시에서 사라진 여우는
어찌하면 너게 시를
볼이 다루지 않을까?

2020. 5. 21
4

만약 여우가 너게 시를
가져 온다면
나는 기꺼이 길을
내 놓겠다!

2020. 5. 21
4

붉은 여우
- 여우고개

누구나 여우 한 마리는 있지
작고 예쁜 붉은 여우
취한 밤 머리맡에서 재주 부리면
공중제비 도는 세상
아무 생각 나지 않지

어디나 여우고개가 있지
저문 장날 집에 갈 때
한밤쯤 나타나는 언덕
여우는 기다리지
후들거리는 그림자 잡히면
아무 생각 나지 않지

어차피 빈손인 날은 오지
붓집도 없이 좌판들 돌다
손짓하는 사람 없는 대포집

볼 장 다 봤다 싶을 때
여우가 찾아내지 남들은 알지 못하는
깊고 따뜻한 포옹

누구나 여우는 있지
보름달 뜨면 깨우는 촉촉한 입술
머리 속을 들여다 보고
독버섯들을 먹어치우지
아직 여우가 없다면
지금 오는 중이지
당신이 너무 멀리 왔으니
-「붉은 여우-여우고개」 전문

여우 고개 ~~은~~ 연락의
첫 번째 시가 나왔나!

2020. 8. 22

모두 다 동의하는 바는 아니지만, 시의 '현대성'을 대표하는 수법은 '반어(irony)'와 '우화(allegory)'라 할 수 있다. 이 반어와 우화는 현대성의 대표적 특징인 '분석과 비판의 정신'을 바탕으로 깔고 형성된다. 뭐, 현대 시론이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왜 <여우고개> 연작을 '알레고리'라 하지 않고 '페이블'이라 했는가이다. 잘 알려진 바대로 알레고리나 페이블이나 다 '우화(寓話)'로 번역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차이가 있다면 페이블이 '전설'이라는 뜻으로 운문보다는 산문 문학 연구에 주로 사용되었다는 점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여우고개> 연작은 운문인데 굳이 페이블로 정의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 연작은 특정 지역(춘천시 신북면 우두동) '전설'의 소재 변용이라는 점에서 우선 알레고리보다는 페이블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였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이유는 이 연작을 '전설', 즉 'fable'로 정의해야만 그 용어가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성격인 '환상성(fantasy)'이 시 작품을 형상화할 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기 때문이다.

환상성라 현실의 시의 조화!

2-21 . 4-25

바람에 나는 여우고개의
 꼬리를 붙여낸 것일까?
 두 번췌 새 시가 나왔다.

밤마다 여우가 오더군
 호수도 잠든 시간
 동네 불 모두 꺼질 때
 여우는 알지 깨어있다는 걸
 입 틀어막고 숨소리 내지 않아도
 내게로 오지
 코를 활고 심장을 확인하면서
 새로 쓰는 간이 익기를 기다리지
 나는 꿈쩍도 못하고
 여우의 눈만 바라보다가
 오늘은 왜 슬퍼 보이는지 묻지도 못하고
 까무룩 잠이 들지
 아침이면 선연한 찻자국
 문신 같은 말이 새겨져 있지
 -「반복- 여우고개」 전문

이 시는 '여우'는 원 전설의 '구슬'을 건네주고 건네받는 '여우'가 아니라 '새로 쓰는
 꼬리를 붙여낸 것일까?'라는 다른 '여우'이다. '프로메테우스 신화'를 모티프(motive)로 한 운동주의 시. <프
 로메테우스 신화>에서라면 이 여우는 '독수리'처럼 형벌을 집행하는 사자(使者)여야 하는데 꼭
 구슬을 건네주는 것 같다. 이 여우= 나의 습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있고('동네 불 모두 꺼
 지 않아도 알지 깨어있다는 걸'), 심지어 내부의 장기 상태를 점검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이 여우는 '새로 쓰는 말'을 선사한다. 게다가 "아침이면 선연한 찻자국/문신 같은 말이 새겨져 있
 다"

2021. 5. 1

검은 길

- 여우근개

날이 밝기만 기다리고 있어

귀찮 감이 짙아져

한밤에 깨기도 해

모두 같은 시간

죄송 울러 나가면

바람소리 바람소리

하늘이시 신원하는

저 날이 빛은 영혼들

영광들은 감그리 안다

누구라도 듣기엔 좋겠어

주변에 물 들린

인형의 쉼기며

날이 밝기만 기다리고 있어

여우가 떠난 여우근개

아무 문제도 없는 하루

신발장에 검은 길이 되었어

2021. 5. 3

여유까지

- 여유 있게

더 이상 울지 않더군

여유 있게 떠나

시내를 들어 갔더군

조명 불을 끄는 순간에는

사내들이 조아질지

쉽게 감을 주는 게 아니었어

기다려도 번 외지 않더군

잠이 마른 나 사망이 되게 해

칼날 보리 물리는 끈질기

말라 비틀어진

여유 있게는 이제 사라졌지
본래만 쓰면 그냥 잊고
대신 울기 보지만
아무도 듣지 않네

나를 돌린 여자가 있는 이별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더군

2021. 5. 5

전운호 시인의 연작, <여우고개>는 두 측면에서 기존 '전설'의 고정된 의미를 해체하면서 새로 쓴 '우화'로서 현대적인 의미를 개척하고 있다. 하나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이야기' 중심을 과감히 버리고 개인감정의 극화가 가장 용이(容易)한 전통 '서정시'를 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시적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자아와 대상의 관계를 짙은 낭만성 쪽으로 계속해서 소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우고개에 샘이 있어
동네 아낙들의 빨래터였다
겨울 건디는 따뜻함이
마르지 않고 흘러
지친 사내들 품어주고
부벼주고 씻겨주었다
때로는 방망이질로 훈계하고
쳐진 어깨 풀 먹여 세우던
그녀들이 여우였을까
아무리 다 큰 척 으시대도
남자는 여자가 키운다
부자들 무덤 파헤쳐
돈 되는 구슬을 훔쳐오던 여우는
누구의 아내였을까
단추 떨어진 소매 같은 하루
문득 여우가 보고 싶다
-「빨래터- 여우고개」 전문

우리는 근대 이전에 형성된 대부분의 이야기가 '가부장적인 체계'의 질서와 그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역할 분리와 남성의 일방적인 이익 획득으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앞에서 본 우두산의 <여우고개> 전설의 경우, 조선 중기의 지관으로 이름을 날렸던 '최충걸(崔忠傑)'이라는 실존 인물의 존재를 알지 못해도, 학동과 여우가 끝끝내 대립을 형성하지 않고, 심지어 여우는 자신의 오랜 공력(꼬리가 아홉, 구슬)을 뺏긴 채 정체가 들통났기 때문에 내뺀다는 구성과 학동, 즉 남성은 그 공력에 힘입어 훗날 성공을 거둔다는 결말에서 어떤 지배와 착취의 흔적을 찾아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런 작품 외적 '서사'에 빠져 허우적대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새로 써지고 있는 '우화'의 진정한 시적 가치를 놓치거나 매몰해버릴 위험이 커진다.

인용 작품은 '여우고개'의 낯의 모습, 그러나 대부분의 이야기가 숨기고 있는 일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홀림과 위험'의 상징이 아니라 '샘과 빨래터'로 표상된 생명과 생활의 상징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시인은 진, 그러니까 연대가 아니라 시인의 인생에서 '저에'라고 지칭

되던 때의 '여우'의 의미를 묻는다. "지친 사내들 품어주고/부벼주고 씻겨주었"던 것과 "방망이질로 훈계하고/쳐진 어깨 풀 턱여 세우던" 손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여우'의 품성과 덕목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곧 "부자들 무덤 파헤쳐/돈 되는 구슬을 훔쳐오던 여우는/누구의 아내였을까"라는 의문을 내세운다. '여우'의 의미가 극명하게 나뉘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구슬'을 건네주고 건네받는 순서가 아니라 그것의 소유가 진짜인 셈이다. 어쨌든 시인이 <빨래터>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공동체의 회복'이나 '잊힌 시간이나 기억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기서 '빨래터'는 감정의 소여(所與)가 우선하는 낭만성과 실용적 행위의 '교차로 처럼 설정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점이 '알레고리'가 '페이블'의 형식을 갖지 못하면 놓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여우는 없어
묶어놓은 개보다 작은 여우
토끼나 잡아먹을 예쁜 주둥이
조상들이 남긴 이야기일 뿐이라지만
여우는 찾길 난 여우고개를 떠나
사냥꾼이 사라진 이 도시로 숨어들었지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들이
휘청휘청 걷는 거리
홀린 줄도 모르고 목줄에 묶인 동네
그래도 여우가 없을까
그대에게 잔을 들며 외치네
아직 남아 있어 고맙다고
모두가 사라졌다 믿는 여우를 잡으려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뜬다네
-「잔을 들며- 여우고개」 전문

전윤호 시인의 <여우고개>에서 '여우'의 편재성은 드디어 현대적 의미의 한 특성이 되어 "사냥꾼이 사라진 이 도시"에 배경으로 깔린다. 자, 이제 '여우/고개'의 '바(bar)'를 걷어내고 '홀림의 위험', 또는 '위험에의 홀림'이라는 의미로 도시와 동네에 우후죽순으로 솟구치는 여우고개를 마주해야만 한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이 땅의 야생에는 '여우'가 없다. 멸종했고, 정부의 '종복원 프로그램'에 의해 고작 몇십 마리가 방사된 실정이다. 또한, 춘천시 신북면 우두동의 '여우고개'도 이름만 남고 형체가 사라진 지 오래다. 지역은 전설은 실제 '조사님들이 남긴 이야기'로 인구에 회자(膾炙)되지도 않고, 몇몇 퇴색한 문헌에 활기 없는 문자로 붙잡혀 있을 뿐이다. 이런 사정 앞에서 시인은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들이/휘청휘청 걷는 거리/홀린 줄도 모르고 목줄에 묶인 동네"를 향해 "그래도 여우가 없을까"라며 두려운 질문을 마다하지 않는다.

전윤호 시인은 "모두가 사라졌다 믿는 여우를 잡으려고/오늘도 아침에 눈을 뜬다" 그러니까 그에게 '모두가 믿는다' 따위는 결코 '진실'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 시인이 <여우고개> 전설을 소환해서 경직된 교훈의 껍질을 벗겨내고, 감정의 크로스오버라는 새로운 '우화'를 작성해나가는 독심도 여기서 비롯한다. <여우고개> 연작의 전편이 하나하나 잘 병근 꽃으로, 또 모아서 보면 그냥 한 꽃다발이 아니라 다른 형질의 꽃으로 활짝 피어날 순간을 기대해본다.

시는 기록이 되고 역사처럼
사실을 특정한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상상함으로써 변형되어
기록된다.

춘천에 여우 고개가 있는데
 소복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서당 가는 학생들을 흘렸다네
 찾길을 내려 바닥을 뚫더니
 붉은 물이 솟구쳤다는군
 까만 눈을 반짝이는 당신은
 언제부터 내게 서식했는지
 당신 보면 헤벌쭙 웃는 나는
 언제 흘린 건지
 누군가를 흘릴 수 있는 말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오늘도 그저 바보처럼 멍하니
 붉은 물이 솟구쳐 얼굴만 붉혔다네
 -「미인- 여우고개」 전문

앞에 인용한 작품에서 전반부는 실제 '여우고개'의 변모 상을 압축해서 드러낸다. 전설이 형성되고 통용될 무렵에는 분명 '소복 입은 아름다운 여인'과 '서당 가는 학생'이 등장하기 안성맞춤인 '고개'였지만, "찾길을 내려"라는 표현에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듯이 이제는 고개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실제 그 지역을 안내하는 글에서도 그냥 4차선 도로라고 보인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시인은 여기서 새로운 '전설'을 시작한다. 이어지는 "붉은 물이 솟구쳤다는군"은 그 사건이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던 것이고, 몇몇 사람들에게 의해서 즉 문서가 아니라 구전(口傳)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인은 그 이전의 전설에서 어떤 형질을 자신의 것, 즉 자신의 특성으로 개성화하기로 했는데 "당신을 보면 헤벌쭙 웃는 나"로 묘사된 시적 화자가 '홀림'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앞에 두고 "붉은 물이 솟구쳐 얼굴만 붉혔다네"라며 계면 짚어하기 때문이다.

비록 '원형(archetype)'은 아니더라도 '여우/고개'는 많은 지역과 문화권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고정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우'는 '홀림'을, '고개'는 '고비, 위험한 순간'이라는 뜻을 쉽게 짐작하게 한다. 아직 전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윤호 시인의 <여우고개>의 '여우'는 '홀림'의 주체이자 객체로, 거부하면서 매혹되는 얼마간의 '이중성'을 내포한 채 등장한다. 그것은 앞의 작품의 부제가 '미인'이라는 것과 상관하기도 한다.

잔을 들며

—여우 고개

이제 여우는 없어
묶어놓은 개보다 작은 여우
토끼나 잡아먹을 예쁜 주둥이
조상들이 남긴 이야기일 뿐이라지만
여우는 찾길어 난 여우 고개를 떠나
사냥꾼이 사라진 이 도시로 숨어들었지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들이
휘청휘청 걷는 거리
홀린 줄도 모르고 목줄에 묶인 동네
그래도 여우가 없을까
그대에게 잔을 들며 외치네
아직 남아 있어 고맙다고
모두가 사라졌다 믿는 여우를 잡으려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뜬다네

유혹의 기술

- 여우 2개

여우가 어떻게 사람을 끌리까
당치 큰 사내 끌복시킴 까
많은 진심이더군
아름다운 여인이 진심으로 다가오면
흔이 안 나갈 사내가 어디 있겠나
가장 높은 유혹의 기술
바라기 면 말이 없리
간을 뺏기 때까지
아플도 느끼기 몰라리
여우는 2순간까지
오리 2 사내를 사랑하리
꼬리가 하나 더 늘리

프레사지

- 여우 노래

절도 없고 부채도 없고
삼총탕 쫓나 달달남은 절터
밋음도 화려해야 커지나
아무도 걱정떠 보지 않느냐
여우도 없고 전설도 있는 이쪽
반개 깃들던 숲은 사라지고
전부담 파레츠에 내 길
겨울에 뻗어내려하던 새들도
만났나

부채도 없고 여우도 있는 동네
빈 아파트나 올라가고
이제 무슨 기대로 아련을
만들까
목련 꽃 한 잎씩 떨어지
딩글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또 한 달이 지나간다

호곡성

— 여우고개

보름달 뜨면 들어보렴
여우고개에서 들리는
저 기다란 울음
이 호수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지
뒤도 안 돌아보고 내뺄는 길이
사방으로 뚫리고
골마다 아파트가 들어서도
여우는 떠나지 않는다지
소복 입고 고갯길에서
사내들을 후리다가도
보름달 뜨면 운다지
이별에 멈춘 시간
인간이 알 수 없는 여우의 사랑
때론 안개 밟고 찾아와
누구도 기다린 적 없는
당신 머리맡에서도 운다지

후폭풍

- 여우 고개

내가 사막이라면
넌 선인장이었지

비를 기다리며
가시에 새들이 깃들었던가

잘 가
결국 꽃은 보지 못 했군

안개가 이슬을 만드는
너 없는 아침

한 천 년 쓸쓸했는지
여우가 우네

시를 쓰는데 이유가 필요하진 않다

종종 왜 시를 쓰는지에 대한 산문 청탁을 받는다.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인데 산문 청탁이 오면 난감하다. 게다가 '나는 왜 쓰는가 라니'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왜냐하면 나는 시를 쓸 때 어떤 거창한 이유나 사명감으로 쓰지 않기 때문이다. 질문에 개한 대답은 간단하다. 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쓴다. 시를 미리 생각하지도 않고 시를 재단하지도 않으며 시를 기다리지도 않지만 시가 나온다. 마치 물동이에 물이 넘치듯 시가 나오니 쓰는 수밖에. 물론 평생 이런 건 아니다. 등단 이후 네 번째 시집까지는 오 년에 한 번 꼴로 시집을 냈다. 일 년 내내 시를 붙들고 있었지만 한 달에 한 편 건지는 숫자였다. 그러다가 사십 이후 큰 병이 왔다. 죽거나 불구가 될 수 있는 병에서 운 좋게 벗어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출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고 이후 시 한 번 열심히 써보고 죽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후 시마가 찾아왔다. 내가 부른 건지 그가 온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매일 시를 쓰게 되었다. 매년 한 권 꼴로 시집을 냈고 어느 해는 세 권을 낸 적도 있다. 먹고살기 위해서, 가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시가 아닌 일을 할 때는 없었던 현상이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다른 일은 안 하고 시만 쓰는데 이 정도는 써야 하지 않을까 싶다.

시와 가까워진 것은 이미 정선이라는 곳을 고향으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와 함께 그곳으로 가 본 시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시인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나."

가깝게 지내는 일 년 후배가 박정대 시인이고 일 년 선배가 최준 시인이다. 그 외에도 많은 시인들이 정선 출신이다. 인구 5만도 안 되는 산골이지만 거대한 문학의 뿌리가 있다. 바로 정선아리랑이다. 산중에 사는 사람들의 대 서사시가 공기 속에 녹아 있는 것이다.

'정선'하면 일단 사람들의 머리에 떠오르는 말은 오지이다. 부인할 수도 없이 그곳은 적어도 남북통일이 되지 않은 한 한국의 대표적인 오지이다. 예전에 임금을 한 단종이 유배를 갔어도 정선보다는 위인 영월로 갔다. 아마 정선으로 보냈으면 중앙의 힘으로는 통제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정선 아리랑 가사를 보면 '정선 읍내 일백 오십 호 모두 잠들여 놓고서....'란 가사가 나오는데 읍내의 인구가 그 정도였으니 나머지는 안 봐도 훤히 다. 한 마디로 잘라 말하자면 그때는 아마 사람 수보다 산봉우리 수가 더 많았을 것이다. 어렸을 때 학교 뒷산에 올라가 바라보면 봉우리 뒤에 봉우리 봉우리 뒤에 또 봉우리가 보이는 풍경의 전부였다. 지금도 정선군의 인구는 5만을 넘지 못한다. 아니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하루 걸려야 넘던 재들은 모두 터널이 뚫리고 비만 오면 진창이 되던 길은 모두 포장도 됐지만 젊은 사람들은 마땅히 벌어먹고 살 길이 없어 고향을 떠난다. 정선에는 아직도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 놀던 친구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들은 요행히 그곳에서 버티고 살 언덕을 잡은 행운아들이이다. 살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 떠나는 사람들은 언제든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외지에서 산다. 그래서 허리가 허영게 되도록 고향을 잊지 못하고 어쩌다 텔레비전에서 정선 비슷한 풍경이라도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곤 한다.

내 시는 정선과 떨어져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나와 함께 정선에 와 본 사람들은 정말 시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데 공감한다. 이 고장 출신들만 아니라 다른 고장 사람들도 정선에 오면 작품을 남긴다. 황동규 시인의 시집 <물운대 행>에 나오는 물운대도 정선에 있

다. 박지원의 <양반전>도 정선이 무대이고 무엇보다 수천 수의 가사에 서민들의 애환이 들어 있는 정선아리랑이 있다. 이 나라의 대표 노래로 알려진 아리랑의 원조는 바로 정선 아리랑이다. 대원군이 경복궁을 증건할 때 정선 사람들도 징발이 됐는데 정선아리랑이 워낙 노동요의 성격이 강한지라 전국에서 징발되어 온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정선 사람치고 아리랑 한두 수 못 부르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그 가사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면서 무수히 새롭게 탄생한다. 한 마디로 살아 있는 노래인 것이다.

사람은 살면서 몇 번의 아픈 이별을 경험한다. 상처 입은 짐승처럼 어쩔 줄 모르다가 가서 앉는 곳은 역시 강가이다. 정선의 강은 이른바 뱀이 기어가는 형상의 사행천이다. 한 쌍처럼 강 앞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다. 강변에 앉아 절벽을 바라보면서 돌도 던지고 고함도 지르고 노래도 부른다. 그리고 술병의 술이 다 떨어질 때쯤이면 날이 어둡고 나는 이제 내 사랑이 흘러간 물처럼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어디 사랑뿐이겠는가. 서툰 솜씨로 세상을 살면서 많은 직장을 옮겨 다녔다. 그간 쓴 사직서만 해도 족히 열 장은 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숨 한 번 제대로 쉬면서 생각해보려고 고향에 내려왔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는 짓이 뱀이 기어가는 듯한 강줄기를 따라 가는 것이었다. 차를 타고 가도 좋고 걸어도 좋았다. 그러면 산이 내게 말을 했다. "넌 괜찮다 아직 괜찮다..."

물운대는 내 추억이 얽혀있는 곳이다. 물운대는 산길을 조금 올라가면 어느새 절벽의 위가 나오는 곳인데 수백 년 묵은 소나무가 돌 위에 솟아 있어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곳이다. 지금은 그 소나무가 말라 죽어 잔해만 남아 있지만 내 기억 속에는 항상 푸르른 나뭇가지를 드리우고 있다. 내가 좋아한 모든 사람들과 내가 사랑한 사람은 모두 이곳으로 함께 왔다. 도대체 나는 절벽 위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던 것일까. 내 사진첩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푸르른 소나무 앞에서 찍은 사진들로 가득하다. 눈이 올 때도 비가 올 때도 물운대는 항상 나의 순례지였다. 대학을 다니던 어느 겨울날 저녁 홀로 물운대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버스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순례자를 만났다. 말없이 혼자 버스를 탄 그 사람은 시인 박정대였다. 그나 나나 같은 고향 1년 선후배사이였지만 서로 글을 쓴다는 것만 알뿐 부러 만나지는 않던 사이였다. 우리는 어두워지는 산천을 보며 이런 저런 얘기를 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등단을 한 뒤에 함께 시화전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다. 몇 년 뒤 우리는 시인이 되고 이제는 약속을 하지 않아도 서울에서 마주치게 됐다. 하지만 언제나 기억 속에는 어두운 겨울 저녁 물운대에서 정선읍으로 들어가는 버스 속에서 만난 문학청년이 생각난다.

오랜 의심과 불편함이 시를 쓰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화가 나면 참지 않았고 손해 본다 싶으면 항의했으며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노력했다. 나보다 나이 많은 가족들이 가르쳐준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춘기가 찾아왔다. 조금만 유심히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얼기설기 대충 조악하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가 아는 도덕과 규범이란 건 결국 소수의 가진 자들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일 뿐이다. 나는 종교도 법도 도덕도 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구역질나는 정치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내가 성질을 부릴 때마다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이런 세상에 순응한 자들이다. 그렇다고 내게 요구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나도 이제 오십이 넘었다. 사십이면 천명을 안다지만 오십이면 인간사를 훑어보는 수준은 된다.

시인은 정착민이기 보다는 유목민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매년 같은 자리에 씨를 뿌리고 노동
을 하는 것보다는 양과 함께 황무지를 헤메는 것이 제격이 아니겠는가.

어쩌면 죽음을 넘나든 병이 내 시를 더 키웠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부처의 말
을 가깝게 들었던 동국대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생각에 시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서 나온다. 물론 그게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곳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쓴다. 나오는 대로. 그게 전부다.

여고개미는 더 이상 뛰기

할 수 없다

하지만 수천 년 인간과 함께
사라진 여우들이 정말
멸종 되었을까?

여우들은 아마 인간으로
변해 지금 이 도시 안에서
번잡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고개미는 이제 죽었네
안녕